

남성의 성평등 의식 예언을 위한 모형 통합 : 사회정체성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을 중심으로*

김금미*
성균관대학교

안상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 사회에서 남성의 성평등 행동의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도덕적 책무(moral obligation)를 포함하여 수정한 계획된 행동이론과 사회정체성이론(Tajfel, 1982)의 통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전국 20대 이상 남성 1,01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성별사회정체성을 추가하여 성평등 의식을 21.4% 설명하였고,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지위, 합법성, 안정성의 사회구조 요인을 추가하여 성별사회정체성의 20.0%를 설명하였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성평등 의식(태도)과 주관적 규범, 행동 통제감, 도덕적 책무감을 추가하여 성평등 행동의도의 44.8%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통합 모형을 공변량 구조 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모형의 부합도 지수가 대체로 양호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이 지지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남성의 성평등 행동을 예언하기 위해 사회심리학분야에서 지지 기반이 높은 두 이론의 통합을 시도함으로써, 성별집단 간 사회구조 요인의 지각에서부터 심리적 기제를 통하여 행동의도에 이르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끝으로 모형 통합에 따른 추가 이슈들과 이 연구의 의의와 한계 및 앞으로 연구 과제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 성평등 행동의도, 사회정체성이론, 계획된 행동이론, 지위, 합법성, 안정성, 성평등 의식,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도덕적 책무

2008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 WEF)이 발표한 남녀격차지수(Global Gender Gap Index : GGI)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남녀격차지수는 130개국 중 108위를 기록하였다.¹⁾ 이는 2007년 128개국 중 97위였던 것에 비추보면 한국의 남녀평등 수준은 오히려 퇴보하였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수치는 여성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가정에서의 불평등에 그치지 않고, 경제활동과 기회에서

의 불평등과 사회적인 불인정에 이르기까지 여성 개인의 불만과 고통으로 체감되고, 국가적으로는 교육받은 인적 자원의 낭비와 이혼율의 상승 및 저출산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 지난 1995년 유엔 여성회의의 ‘베이징 선언’은 회원 국가들이 성평등을 위한 노력에 남성이 전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것을 명시하였다. 2000년 유엔총회(베이징 플러스 5)에서도 ‘남성은 성평등 축

* 이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6년도 협동연구과제 보고서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 교신저자 : 김금미, (110-745) 서울시 중로구 명륜3가 53번지 성균관대학교 응용심리연구소, 전화 : (02) 760-1280

E-mail : imttokki@hanmail.net

1)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성취도, 건강과 생존, 정치권한 부여 정도를 통해 남녀의 격차와 평등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진을 위해 여성과 함께 책임지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성평등을 위한 정책으로 여성의 삶의 질 개선 프로그램에 오랫동안 초점을 맞추어왔던 옥스팜(Oxfam GB)²⁾도 지난 10여 년 동안은 남성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꾼 바 있다(Ruxton, 2004, 4-5). 이에 성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남성과의 노력 협조를 위하여, 남성의 성평등 인식 정도와 이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성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들은 성별 관계에 관하여 개인적 차이로 보는 관점과 남성과 여성의 집단간 관계로 보는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컨대 정진경(1990)의 연구는 개인차로서 남성이나 여성의 전형이 되는 성격특성이나 인지반응을 측정하고, 이것이 여성성, 남성성 혹은 양성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이나 이후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다루었다. 한편 김금미(2001)는 개인차의 관점을 취하면 여성이나 남성이라는 집단 간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성별사회정체성으로 인한 집합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고, 남녀관계를 사회정체성이론(social identity theory)의 틀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금미와 한영석(2003)은 성평등에 관련한 태도가 성평등 행동으로 발현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합리적 행위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고 도덕적 책무감을 추가하여 성평등 행동의도에 대하여 55.4%의 설명력을 얻은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평등 태도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성별사회정체성을 중심으로 사회정체성이론을 적용하고, 성평등 행동의 발현을 예측하기 위하여 태도를 중심으로 다른 변인들을 추가하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추가하며, 더 나아가 두 모델의 통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구조 요인들이 성평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정체성이론

Tajfel과 Turner(1979, 40쪽, 한덕웅, 1996에서 재인용)가 정리한 사회정체이론(social identity theory)의 기본 가

2) 옥스팜 GB(Oxfam Grate Britain) : 국제 개발 기구의 하나.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개발기구로서 75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주요 목적은 지속적 생존을 위한 교육과 보건, 폭력과 재앙으로부터의 보호, 지역사회의 결정참여, 그리고 평등권이다.

정들은 다음과 같다; ①인간은 자존심을 유지하거나 높이 고자한다 ②사회집단들 혹은 범주들, 그리고 이 집단 혹은 범주의 성원이 된다는 사실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가치와 연합된 함의를 지닌다. 그러므로 개인의 사회 정체성에 기여하는 소속 집단의 평가에 따라서 사회정체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다. ③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평가는 가치를 지니는 속성과 특징의 면에서 특정한 다른 집단들을 준거로 사회비교를 통해서 결정된다. 내집단이 외집단보다 긍정적 방향으로 차이가 나는 비교가 이루어지면 자존심이 높아진다. 반면 내집단이 외집단보다 부정적 방향으로 차이가 나는 비교가 이루어지면 자존심이 낮아진다.

사회정체성이론은 현실집단갈등이론(realistic group conflict theory, Sherif, 1966; Forsyth, 1999에서 재인용)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에서만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인종, 성별, 나이, 집단의 명칭과 같이 집단 간의 사소한 차이에 근거한 구분, 즉 범주화 자체가 집단 간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성별관계에 적용하면, 성별을 구분하는 차이가 곧 차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즉,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러한 차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은 성평등 인식의 함양을 위하여 긍정적이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차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성별에 따른 범주화는 자신이 속한 내집단과 그렇지 않은 외집단으로의 구분을 낳으며, 이러한 구분에 근거하여 사람들은 내집단의 긍정적 집단정체감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비교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자신이 속한 내집단에 대한 편애와 외집단 차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내외집단 구분에서 개인이 소속되어 있거나 동일시하는 집단이 차지하는 상대적 지위가 자기 평가의 주된 근거가 된다(Mummendey, Kessler, Klink, & Mielke, 1999a). 사회정체성이론은 이러한 가정에서 자신이 속한 집단을 긍정적으로 차별화하기 위해서 집단 소속감과 집단 간 관계를 유지 또는 변화시키는 조건을 밝히고자 하였다(Taylor & Moghaddam, 1987).

Tajfel과 Turner(1986)는 이 조건에서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사회정체성의 관리전략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 가운데 개인행동 전략에 해당하는 '사회적 이동'은 지

위가 높은 집단에 가입하려고 시도하는 전략이다. 개인인지전략에 해당하는 ‘개인화’ 전략은 개인정체성의 차원에서 긍정적 자기 평가를 얻고자 할 때 나타난다. 집합행동 전략인 ‘사회적 경쟁’ 전략은 소속 집단의 상대적 지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집합인지전략인 ‘사회적 창조’ 전략은 소속 집단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내집단의 독특성과 우수성을 외집단과 차별화하려는 시도를 일컫는다. Blanz, Mummendey, Mielke 및 Klink (1998)는 사회정체성이론과 사회비교이론으로부터 사회정체성 관리 전략으로 제안된 12개 전략을 2(행동/인지)×3(내외집단 무변화/내집단 무변화, 외집단변화/내외집단 변화)의 6가지 범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분 가운데 공통되는 분류로 인지/행동 전략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가운데 인지적 전략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먼저 개인인지 전략의 예는 자신을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한 개인으로 개인화(individualization)하는 것이다. 집합/인지 전략 가운데 새로운 비교차원의 창출은 남성과 여성의 비교에서 ‘남성은 힘이 세고 여성은 약하다’는 힘의 차원이 아니라 ‘남성은 폭력적이고 여성은 평화를 사랑한다’와 같은, 여성에게 좀 더 유리한 차원을 사용하여 비교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지적인 전략들은 행동 전의 사고를 모두 포함하므로 태도적인 면과 행동이 나타나기 직전의 행동의도에 해당하는 측면을 모두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체성 관리 전략을 태도 측면과 이에 따른 행동의도 측면으로 구분하여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Mummendey, Mielke, Wenzel 및 Kanning(1996)의 연구를 비롯한 사회정체성이론 진영의 연구들에서는 성별 사회정체성이 사회정체성 관리 전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모델을 가정하고 검증해왔다. 김금미, 한덕웅 및 한영석(2003)의 연구에서도 성별사회정체성이 정체성 관리 전략으로서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여기에서 행동의도는 행동으로 드러나기 직전 단계에 해당하는데, 문항의 예를 들면 ‘성평등 촉구 대회에 참여하겠다’ ‘서명운동을 해야 한다’는 등의 문항이었다. 한편 성별에 관련한 태도는 ‘호주제도는 여성을 차별하는 제도이다’나 ‘아내는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는 것이 행복하다’로 측정되며, 성별사회정체성은 이러한 가치와

신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정체성이론을 성별관계에 적용할 때 성별사회정체성이 전략으로써 성평등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성별사회정체성에는 사회구조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Mummendey 등(Mummendey et al., 1996; Mummendey, Klink, Mielke, Wenzel, & Blanz, 1999b)은 이러한 사회구조 요인들을 지위, 합법성, 안정성 등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사회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바 있다. Jackson, Sullivan, Harnish 및 Hodge (1996)의 연구에서는 자신이 속한 집단이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고 부정적 사회정체성을 갖게 될 경우, 다른 집단으로 소속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면 개인 전략의 하나인 사회적 이동 전략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고, 만약 집단소속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면 집합전략의 하나인 사회적 창조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결과를 성별관계에 적용해 보면 남성과 여성처럼 집단구분이 선천적, 생물학적 차이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상대 집단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사회적 이동 전략을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창조나 집단 항의와 같은 집합적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자신을 개인화하고 더 나아가 자신을 남성들과 심리적으로 동일시하는 전략도 가능할 것이다.

Ellemers, Spears 및 Doosje(1997)의 연구에서도 집단의 지위와 집단 정체감에 따라서 다른 집단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실험 1에서는 내집단 지위가 낮을 때, 집단에 대하여 낮은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은 높은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 집단으로의 개인적 이동을 더 원하였다. 또한 실험 2에서는 상대적인 집단 지위를 모를 때에도 내집단 정체성이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았는데, 집단의 위협이 없을 때조차도 집단에 대해 낮은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높은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보다 개인적 이동을 더 원하였다. 이는 지위의 영향과 집단 정체성에 따라서 개인적 전략과 집합적 전략의 선택이 달라짐을 보이는데 의미가 있다.

한편 남성이 여성과 비교하여 현재 처한 지위가 합법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자신이 속한 남성범주에 동일시하여 긍정적인 사회정체성을 지닐 수 있다. 합법성은 현재 지

위가 결정된 과정이 합법적인지 비합법적인지에 대한 개인적인 지각 수준이다(Mummendey et al., 1999a). 즉 현재 누리고 있는 성별 지위가 얼마나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 이러한 합법적인 지위 집단에 대한 동일시는 자기평가를 유지시키거나 향상시키려는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다(한덕용, 2002; Karasawa, 1991; Tajfel, 1982). 그러므로 남성이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지각하고 그 지위가 정당한 근거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인식하는 남성일수록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김금미, 한영석, 2002).

또한 사회정체성이론에서 안정적인 집단 간 관계는 현재와 다른 지위 구조가 고려되지 않는 상황이고, 반면 불안정한 집단 간 관계는 다른 대안적 지위 구조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Ellemers, 1993). Mummendey 등(1999b)의 연구에서는 안정성이 내집단 동일시를 증가시키고 사회적 경쟁과 같은 집합적 전략을 촉진시키며, 불안정성은 내집단 동일시를 약화시키고, 개인적 이동과 같은 개인적 전략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Ellemers(1993)는 집단 간 관계가 불안정하고 비합법적일 때 집단 간 갈등이 가장 클 것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지위, 합법성, 안정성의 사회구조 요인이 사회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자들 간의 일관되지 못한 예언이 있으므로, 조건에 따른 영향관계를 더욱 명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김금미 등(2003)의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지위, 합법성, 안정성이 성별사회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중다 회귀 분석 결과에서는 안정성이 유의하지 않았고, 양성평등 행동의도를 포함한 공변량 구조 모형에서는 미약한 정적 관계를 얻는데 그쳤다. 이러한 경향성은 남성을 대상으로 한 김금미와 한영석(2003)의 연구에서도 유사했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 안정성이 성별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단위의 표집을 통하여 안정성이 사회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하여 지위 지각, 지위의 합법성과 같은 사회구조 요인들이 성별사회정체성과 경쟁전략 채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외국의 사회정체성이론을 이용한 많은 연구들의 주된 관심은 낮은 지위 혹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었고

(Ellemers, Spears, & Doosje, 1997; Mummendey et al., 1996, 1999a), 그 결과 높은 지위 혹은 사회적으로 이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상황을 유지하거나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으며 국내에서도 매우 적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해당하는 남성의 성평등 행동에 관련한 연구는 사회적인 성평등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남성과 여성의 집단 간 관계에서 지위가 높고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은 남성들이 어떤 조건에서 높은 성평등 의식을 나타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사회정체성 관리 전략을 인지/행동적인 면으로 구분하고, 성별사회정체성에서 성평등 의식을 거쳐 행동적인 면으로 발현될 때까지를 좀 더 세분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사회정체성이론에서는 성별지위, 지위의 합법성, 안정성 지각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유지하기 위해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집단 간 경쟁 전략을 채택할 것이므로,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을수록 성평등 의식은 낮을 것이다. 따라서 성별사회정체성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들 사회구조 요인들은 성평등 의식과는 부적적인 관계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먼저 사회구조 요인으로서 성별 지위, 합법성, 안정성과 성별사회정체성 그리고 성평등 의식 간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성평등 태도에서 행동에 미치는 영향 : 계획된 행동이론

태도란 '경험을 통해 조직화되는 것으로서, 태도대상과 상황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직접적이거나 역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 및 신경적 준비상태'(Allport, 1935; 한덕용, 성한기, 강혜자, 이경성, 최훈석, 박군석, 김금미, 장은영, 2005에서 재인용)이다.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Fishbein과 Ajzen(1975)의 합리적 행위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에서는 '행동을 보다 정확히 예언하기 위해서는 행동 이전의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고 행동 지향성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의도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합리적 행위이론은 계획된 행동이론으로 수정되기 전까지 태도-행동 연구의 지배적인 이론이었다(Norman & Smith, 1995).

이 이론에서 행동의도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첫째는 행동에 대한 개인의 태도로서 이것은 어떤 행

동에 대해 그 사람이 호의적인 평가를 하는 정도를 말한다. 성평등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남녀의 능력과 성격, 역할, 사회적 권리와 자유, 그리고 평등정책 및 제도와 관련한 한국인의 태도를 측정할 목적으로 한국형 남녀평등 의식검사(김양희, 정경아, 2000)가 개발된 바 있다. 둘째, 주관적 규범은 개인에게 중요한 인물들이 그 행동에 대한 정적 혹은 부정적 사회적 압력을 지각하고 이에 동조하려는 경향성을 말한다. 즉, 중요한 타인에게 오는 압력에 대한 지각과 이에 따르려는 동기로 이루어진다. 남편이 가사 일을 하려해도 지켜보는 어머니가 반대하시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가사 일을 함께 하는 측면과 관련된 성평등적인 행동의도를 지니거나 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한편 합리적 행위 이론에 따르면, 행동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행동에 대한 개인의 태도보다는 행동을 수행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때 행동의도가 실제 행동을 정확하게 예언하기 위해서는 그 행동이 자신의 의지적 통제 하에 있는가가 중요하다. 만약 행동이 개인의 통제 하에 있지 않다면, 행동의도가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기는 어렵게 된다. 예컨대 남성들이 성평등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성평등적 행동 방식을 모른다면 행동통제력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 통제력의 문제를 고려하여 Ajzen(1988)은 합리적 행위 이론을 개정한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ur)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계획된 행동이론에 의하면 행동이 개인의 통제력 밖의 요인들에 의해 영향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그 행동이 개인의 의지적 통제력 하에 있다고 여겨지는 정도를 의미하는 ‘지각된 행동 통제감’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동통제감은 행동을 수행하기가 쉽거나 어렵다고 지각하는 수준이다. 장애물이나 방해요인이 없으면서 자원이나 기회가 많다고 지각하면 행동의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가정한다(한덕웅, 이민규, 2001). 예를 들면, 자신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를 지지하는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데 방해하는 요인이 없고 이 행동을 할 기회가 많다고 생각할수록 그 행동을 수행할 의도를 더 많이 가지고 또한 그 행동을 더 하게 된다. Ajzen(1991)에 따르면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의도를 예언하고, 자신이 그 행동에 통제력이 있다고 지각하는 것이 정확할 때 실

제 행동수행을 예언하게 된다.

한편 김금미와 한영석(2003)은 도덕적 책무도 성평등 행동의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제안했다. 도덕적 책무는 옳고 그름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말하는 것으로서 성평등 행동에 대한 당위성을 의미한다. 실제로 그들의 연구에서 남자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먼저 성평등 행동의도가 합리적 행위이론에 의해 35.2%, 계획된 행동이론에 의해 45.9%가 설명되었고, 성평등 행동은 각각 37.3%, 39.6%가 설명되었다. 후속하여 계획된 행동이론의 선행변인들에 도덕적 책무가 추가되면 성평등 행동의도의 55.4%, 성평등 행동의 40.8%가 설명되었다. 또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김금미, 정해숙, 정경아, 2007)에서 성평등 행동에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인 변인은 성평등 태도였고, 이어서 성평등 행동에 대한 당위(도덕적 책무), 성평등 행동의도 등의 순서로 관련되었다. 또한 성평등 행동의도에 가장 관련성이 높은 변인은 성평등 행동에 대한 당위, 성평등 태도 등의 순서였다. 따라서 성평등 행동과 관련된 도덕적 책무의 중요성은 이미 검증된 바 있다.

사회정체성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의 통합

최근에는 다양한 행동들에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면서 그 행동에 더 적합한 예언 요인들이 추가되거나,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를 더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요인들과 이론들이 부가되기 시작하였다. Giles, McClenahan, Cairns 및 Mallet(2004)는 계획된 행동이론에 자기효능감 이론을 적용하여 특히 헌혈 행동에서 자기효능감이,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감, 자기정체감, 과거 행동에 비해 헌혈의도를 가장 높게 설명하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White, Hogg 및 Terry(2002)는 대학(실험 1)과 성별(실험 2)에 대한 태도-행동 일관성에서 집단 규범의 역할을 추가하여 사회정체성/자기 범주화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준거관련 집단에서 유래하여 원래 태도에 조화되는 규범적 지지를 받을 때 더 태도에 일관되게 행동하였고, 이 효과는 집단의 특출성이 현저할 때 더 강했다. 이러한 이론 통합 연구들 가운데 특히 주관적 규범과 관련하여 사회정체성이론의 개념이 주목된다.

사회적 행동과 건강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계

획된 행동이론의 요인들 가운데 주관적 규범의 영향력이 약한 점과 관련하여 계속된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Armitage와 Conner(2001)의 계획된 행동 이론에 대한 메타분석에서 각 요인들과 의도의 상관을 볼 때 주관적 규범이 태도, 지각된 행동 통제, 의도의 상관을 비해 더 낮았다. Ajzen(1991)은 주관적 규범이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은 이유로, 의도는 타인의 압력보다 태도와 지각된 행동 통제에 의해 더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주관적 규범을 대신하여 사회정체성/자기범주화 이론에서 나온 ‘집단 멤버십’이나 사회적 영향 요인으로서의 ‘사회적 지지’ 같은 다른 형태의 사회적 영향원들이 주장되고 있다(Hamilton & White, 2008). 즉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의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주관적 규범과 독립적으로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집단적 요소들을 강조하면서 두 이론의 통합이 시도되고 있다.

예를 들어, Hamilton과 White(2008)는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 과거 행동, 자기 정체성(문항 예 : 운동을 하는 것은 나의 중요한 부분이다), 집단 규범(문항 예 : 학교에 있는 당신의 친구들은 지난주에 운동을 평균적으로 얼마나 했습니까?), 가족의 사회적 지지(문항 예 : 보통 일주일에 가족들이 당신과 함께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친구들의 사회적 지지(문항 예 : 보통 친구들이 당신이 운동 하는 것을 일주일에 얼마나 자주 고무시켜줍니까?), 그리고 사회적 규정(문항 예 : 나와 함께 운동하기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등을 포함시켜 운동에 대한 의도와 행동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과거 행동, 자기정체성, 집단 규범이 운동에 대한 의도를 설명했고, 사회적 지지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의도, 과거 행동, 그리고 자기 정체성이 유의하였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연구들에서 두 모형을 통합하는 방식은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의 틀에서 의도 앞에, 추가되는 변인들을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병렬적으로 삽입시키는 것이다.

한편, Zomeran, Postmes 및 Spears(2008)는 집합적 행동에 대한 통합적인 사회정체성모형(SIMCA : social identity model of collective action)을 통하여 집합적 행동에 대한 지각된 불공정성, 효능감, 사회정체성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정체성은 불공정성과 효능감이

집합적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사회정체성은 집단규범을 강하게 지지하여 집합적 행동에 개입할 강한 동기를 부여하고, 집단에 대한 정서적 경험을 강하게 하여 불공정성을 지지하게 하고, 임파워먼트를 시켜서 효능감을 지니게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볼 때 사회정체성은 행동의도의 원인(遠因)으로서 다른 요인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더 나아가 정체성 관리 전략 모델을 통하여 사회구조 요인과 사회정체성이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함으로써 사회정체성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을 연결 지어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정체성과 태도를 연결 짓는 것은,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 가운데 주관적 규범의 영향력이 미약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정체성이론으로부터 단지 ‘사회적’, ‘집단적’인 개념만을 차용하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간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선행 연구들에서 간과하고 있는 점, 즉 집단규범, 사회적 지지 등의 사회적/집단적 요인들이 태도를 통하여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지위, 합법성, 안정성의 사회구조 요인들이 성별사회정체성을 통하여 태도나 의도에 영향 미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특성, 즉 개인을 둘러싼 환경 조건의 지각으로부터 사회정체성의 형성을 다루는 사회정체성이론의 개념 틀과, 개인 내 태도로부터 행동의도 및 실제 행동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는 계획된 행동이론의 개념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결합을 시도하여 남성의 양성평등 행동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남성의 성평등 의식이 행동의 실천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가설적 모형으로써, 성별 간의 지위, 합법성, 안정성이 성별사회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성별사회정체성이 사회정체성 관리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사회정체성이론’과 도덕적 책무를 새롭게 포함시킨 ‘계획된 행동이론’을 연계시켜 성평등 행동 의도를 예언하는 통합적 모형을 설정하고, 공변량 구조 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그림 1의 통합적 모형에서는 사회정체성이론이 사회정체성 관리 전략을 인지/행동 측면으로 나누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가운데 인지적 측면을 ‘성평등 행동에 대한 태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계획된 행동이론에 비추어 볼 때 ‘성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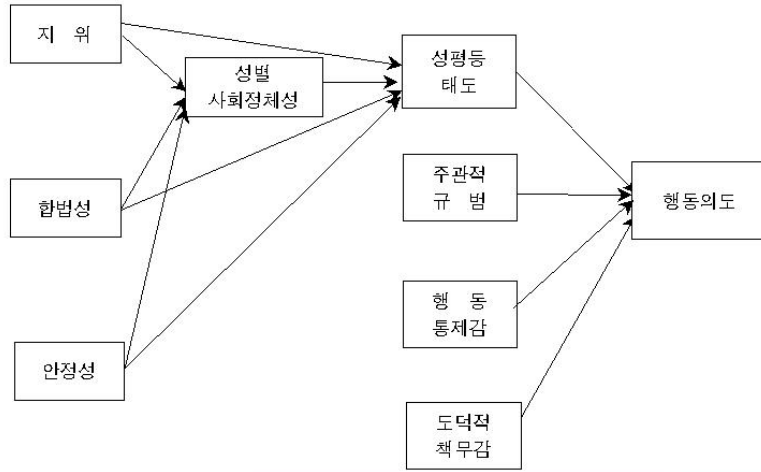


그림 1. 행동의도 관련 선행요인들에 관한 사회정체성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의 가설적 통합모형

등 행동에 대한 태도'는 성평등 행동에 대한 호의적 평가 수준이므로, 성별에 따른 긍정적인 내집단 정체감 유지를 위한 개인 및 집단 차원에서의 인지적 노력의 결과는 곧 내집단에 대한 호의적 태도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사회 정체성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의 연계를 통한 행동의도를 검토함으로써 남성의 성평등 의식 향상과 실천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효율적인 젠더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방 법

조사 대상자

조사 대상자는 전국 만 20세 이상의 남성이었으며, 표본추출은 지역별, 연령별, 층화 후 비례할당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단계로는 2005년 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통계의 만 20세 이상 인구를 성별, 시도별, 연령별로 정리한 후, 2단계로 16개 시도별로 인구 규모를 고려한 비례할당을 실시하였으며 연령, 결혼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종응답자를 선정했다. 최종적으로 남성 1,016명이 선정되었으며,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1:1 가구방문 면접조사로 2006년 6월 21일~7월 8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이를 좀 더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이 49.2%, 영남 지역 26.5%, 충청·강원의 중부권 12.8%, 호남·제주 지역 11.5%로 구성되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5.4%로 가

장 많았으며, 40대 23.7%, 20대 21.8%, 50대 14.7%, 60대 이상 14.5%의 순이었다.

측정도구

성평등 행동의도를 예언하기 위하여 성별에 관련된 지위, 합법성, 안정성과 같은 사회구조 요인에 대한 지각 정도와 성별에 관련한 사회정체성을 알아보았다. 또한 성평등에 관련한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 통제감, 도덕적 책무, 및 성평등 행동에 관련된 의도를 알아보았다. 부가적으로 이러한 성평등에 관련한 의식의 형성배경을 알아보 고자 성의식 형성 요인에 관련하여 두 가지의 질문을 하였다. 전체적으로 '1. 전혀 그렇지 않다 ~ 4. 매우 그렇다'의 리커트형 4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설문지 구성의 제약 때문에 측정도구의 일부 문항만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의 전체적인 신뢰도는 .61 ~ .82 수준이었다.

성별집단지위

자신이 속한 성별의 지위가 다른 성별집단보다 지위가 높은지 낮은지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 성별집단 지위를 알아보는 척도는 Tajfel(1986)의 지위의 상대적 위치와 Jones(1972)의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의 운명을 통제하는 정도를 반영하는 문항을 참조하여 김금미(2001)가 제작한 척도 가운데 '현재 남성은 여성들보다 전반적으로 더

우월한 지위에 있다' 등의 3문항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남성의 성별지위가 여성의 성별지위보다 높다는 의미이고, 문항의 신뢰도(Cronbach α)는 .64였다.

지위합법성

합법성은 현재의 성별간의 지위차이가 합법적인 근거에서 얻어진 마땅한 결과라는 정당성의 지각을 말한다. 합법성의 척도는 김금미(2001)가 사용한 4문항 가운데 '현재 남녀 간의 지위 관계는 여성과 남성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등 2문항이었다. 높은 점수일수록 현재 지위에 대한 합법성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문항의 신뢰도(Cronbach α)는 .67이었다.

지위안정성

안정성은 현재의 성별지위 관계가 다른 지위관계로 변화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지각을 말한다. 즉, 현재 누리고 있는 지위가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대한 지각이다. 역시 김금미(2001)의 3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현재 남성과 여성의 지위관계는 앞으로도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등의 문항으로, 이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지금의 성별지위관계는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각한다는 뜻이다. 신뢰도(Cronbach α)는 .61이었다.

성별사회정체성

이 척도는 사람들이 성별구분에 근거하여 남성과 여성을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이 속한 성별 집단이 가진 공유된 속성을 다른 성별 집단과의 정적 혹은 부적인 사회적 비교를 통하여 긍정적인 자기 개념의 일부로 받아들여려는 경향을 말한다. 김금미와 한덕용(2003)에 의해 개발된 18문항 가운데 요인별로 부하량이 높은 2개씩 선정하여, 6개의 성별집단정체성 척도를 구성하였으며, 이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성별집단정체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은 '나는 내 자신이 남성이라는 사실에 긍지를 느낀다', '나는 내 자신이 남성이라는 사실이 나에게서 중요하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남성들과 함께 하고 싶다' 등이다.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78이었다.

성평등 의식(태도)

성평등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성격 특성 중심의 성역할검사(정진경, 1990; Bem, 1974)가 갖는 한계점을 보완하고 현실의 남녀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측면의 태도를 측정함으로써 포괄적인 남녀평등의식 혹은 성평등 의식을 알아보는 데 활용할 목적으로 개발된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김양희, 정경아, 1999)를 사용하였다. 원 검사는 가정, 교육, 직업, 사회·문화영역 등 다양한 영역에서 모두 8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신뢰도(Cronbach α)가 .95로 매우 높으며, 그 타당성이 반복 검증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4개 영역별로 요인 부하량이 높고, 연구의 취지에 부합되는 5개 문항씩을 선별하여 20문항의 척도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82였다.

주관적 규범

성평등 행동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자신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규범적 압력을 의미한다. 명절 때 아내와 함께 설거지를 하고 싶어도 친지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주관적 규범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김명소, 김금미 및 한영석(2004)이 사용한 척도 중 일부를 사용하였으며, '설거지나 부엌일을 하려면 나는 부모님의 눈치를 보게 된다' 등의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주관적 규범 점수가 높을수록 규범적 압력을 많이 받아 성평등 행동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고, 신뢰도(Cronbach α)는 .66이었다. 주관적 규범은 기혼과 미혼 남성간의 생활 규범 환경이 다를 수 있어서, 혼인 상태별로 신뢰도를 구한 결과, 기혼자의 신뢰도는 .65였으며, 미혼자의 신뢰도는 .63이었다.

행동 통제감

행동 통제감은 행동을 수행하기가 쉽거나 어렵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말한다. 예컨대, 성평등 행동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요소나 방해물이 없고 실행기회가 많으면 행동의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고 가정한다. 김명소 등(2004)이 사용한 척도 가운데 '내가 성평등한 행동을 하기는 어렵지 않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남자를 평등하게 대우할 수 있다' 등의 3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높은 점수일수록 성평등 행동에 대한 통제력이 높아 행

동이 용이하다는 의미이다. 신뢰도(Cronbach α)는 .62였다.

도덕적 책무감

도덕적 책무감은 성평등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얼마나 지각하는 가를 의미한다. 김명소 등(2004)이 사용한 12문항 중 2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문항은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당연히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등이었고, 높은 점수는 도덕적 당위성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뢰도(Cronbach α)는 .65였다.

행동의도

행동의도 문항은 성평등 행동을 하려는 경향성을 측정하려는 것으로서, 태도가 가치나 신념을 측정하는 것이라면, 행동의도는 구체적 행동에 관한 실천 의사나 행동 추구 경향을 묻는다는 점에서 다르다(Ajzen, 1991). 본 연구에서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통해 성평등 의식이 성평등 행동으로 실천되는데 관련된 요인들을 검토할 목적으로 김금미(200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성평등 행동을 직접 측정하는데 따른 한계로 인해, 선행연구(예컨대, Ajzen, 1988)의 결과에서 실제 행동을 가장 잘 예언한다고 밝혀진 행동의도를 최종 준거변인으로 삼았다. 문항은 ‘재산을 아들 딸 구별 없이 똑같이 물려주겠다’, ‘아내가 원하면 내 자녀가 아내의 성을 따르도록 하겠다’ 등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평등한 행동을 실천하려는 의도가 강함을 의미한다. 신뢰도(Cronbach α)는 .69였다.

성인식 형성요인

성평등에 관련한 인식의 형성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자신이 남성으로서 성역할의식을 갖게 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곳을 ‘가정, 학교, 직장, 군대, 매스컴, 기타, 없다’ 가운데 고르도록 하였다. 부가적으로 ‘나의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 가사 일을 적극적으로 도우셨다’, ‘우리 부모님은 아들과 딸을 차별하여 키웠다’, ‘우리 부모님은 부부간에 평등한 관계였다’에 대해 응답하게 하였다.

결 과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사회구조 요인의 지각

본 연구는 남성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의 대표적 표집

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먼저 우리나라 남성들이 지위, 합법성, 안정성과 같은 사회구조 요인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지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는 것이 의미있다. 이에 따라 지위, 합법성, 안정성 지각을 지역 규모, 연령대, 교육수준, 결혼 상태, 월평균 가구 소득에 따라 알아보았고(표 1), 전체 평균과 표준 편차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는 집단 지위에 대해서 척도 중간 값인 2.50점보다 대체로 높은 평균 2.93($SD=.46$)을 보여서, 우리나라 남성들은 남성 집단이 여성 집단에 비해 지위가 높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남성의 성별집단 지위가 높다고 지각하고 있고($F(1, 1015)=3.523, p<.05$), 지역규모, 연령대, 결혼상태, 가구소득별로는 성별집단 지위에 대한 지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합법성에 대한 지각의 경우, 전체 평균은 2.40($SD=.48$)으로 척도의 중간 값 2.50에 약간 못 미쳐서 남성의 높은 지위가 크게 합법적이지는 않다는 인식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합법성에 대한 지각 차이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비교적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결혼 상태 별로 보면, 기혼남성은 미혼남성에 비해 남성의 높은 집단지위가 더 합법적이라고 인식하였고, 연령대별로는 50대, 60대가 가장 합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합법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남성응답자들이 300만원 이상인 남성들보다 더 합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안정성에 대한 지각의 경우, 전반적으로 남성의 집단지위는 안정성이 높지 않다고 보았으며($M= 2.25, SD=.43$),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수준별로는 남성의 집단지위 안정성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중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남성이 집단지위 안정성을 비교적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두 가지 모형을 통합하고자 하므로 두 모형에서 유래하는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포함된 측정변인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성별집단 지위, 합법성, 안정성의 평균(표준편차)

	N	지위		합법성		안정성	
		M (SD)	F 값	M (SD)	F 값	M (SD)	F 값
지역규모							
대도시	479	2.94(.42)	.864	2.43(.47)	2.351	2.27(.43)	1.862
중소도시	454	2.90(.49)		2.36(.50)		2.23(.45)	
읍/면	83	2.95(.45)		2.39(.43)		2.18(.36)	
연령대							
20대	221	2.91(.47)	1.605	2.32(.49)	9.286***	2.26(.43)	1.326
30대	258	2.88(.44)		2.31(.51)		2.22(.43)	
40대	241	2.94(.45)		2.39(.46)		2.23(.43)	
50대	149	2.93(.49)		2.51(.41)		2.24(.42)	
60대 이상	147	3.00(.43)		2.55(.46)		2.31(.46)	
교육수준							
중졸 이하	137	3.04(.46)	3.523*	2.53(.48)	7.527***	2.35(.45)	3.055*
고졸	522	2.92(.47)		2.40(.45)		2.24(.44)	
대졸	330	2.90(.43)		2.35(.51)		2.22(.42)	
대학원 이상	27	2.85(.44)		2.14(.53)		2.19(.40)	
결혼상태							
미혼	279	2.90(.47)	1.561	2.31(.50)	12.148***	2.26(.43)	0.404
기혼	714	2.94(.45)		2.43(.47)		2.24(.44)	
월평균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82	2.97(.45)	1.437	2.45(.49)	4.742**	2.26(.43)	0.171
201 ~ 300만원	284	2.90(.46)		2.41(.45)		2.23(.44)	
301 ~ 400만원	172	2.90(.44)		2.31(.47)		2.25(.40)	
401만원 이상	161	2.90(.48)		2.33(.50)		2.24(.47)	

들 간의 상호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측정치들 간 상관이 $r=-.004$

에서 .558에서까지 분포하였다. 먼저 사회정체성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성별사회정체성의 선행변인인 지위($r=.237$), 합법성($r=.391$), 안정성($r=.118$)이 높을수록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았다. 또한 성별사회정체성과 성평등 의식

표 2. 사회정체성이론 및 계획된 행동이론의 구성개념들 간 단순상관

	M(SD)	1	2	3	4	5	6	7	8
1. 성별집단지위	2.93(.46)								
2. 지위합법성	2.40(.48)	.136***							
3. 지위안정성	2.25(.43)	.023	.202***						
4. 성별사회정체성	2.78(.47)	.237***	.391***	.118***					
5. 성평등 의식	2.63(.33)	-.166***	-.532***	-.219***	-.421***				
6. 주관적 규범	2.17(.46)	.067*	.304***	.132***	.192***	-.432***			
7. 행동통제감	2.83(.44)	-.004	-.300***	-.143***	-.147***	.376***	-.413***		
8. 도덕적 책무감	2.73(.50)	.151***	-.126***	-.185***	-.049	.204***	-.074*	.222***	
9. 행동의도	2.72(.38)	.006	-.445***	-.181***	-.312***	.558***	-.362***	.492***	.287***

* $p<.05$, *** $p<.001$

과의 관계를 보면 $r=-.421$ 로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을수록 성평등 의식이 낮았다. 성별사회정체성의 선행 변인들 가운데에는 특히 합법성($r=-.532$)이 높을수록 성평등 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된 행동이론의 주요 측정변인들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을 때, 성평등 행동의도는 성평등 의식($r=.558$), 행동 통제감($r=.492$), 도덕적 책무감($r=.287$)이 높을수록 행동 의도가 높았으며, 주관적 규범과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r=-.362$)을 보여, 주관적 규범이 높을수록 행동의도가 낮아졌다.

한편 사회정체성이론의 주요 측정변인과 성평등 행동 의도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사회구조 요인들 가운데, 지위요인은 행동의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r=.006$), 합법성($r=-.445$)과 안정성($r=-.181$)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또한 성별사회정체성은 행동의도와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r=-.321$)을 보여,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을수록 성평등 행동의도가 낮아졌다. 또한 특히 성평등 의식,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감 각각과 합법성이 .30 이상의 상관을 보여, 양성평등 태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합법성의 영향이 주목된다.

사회정체성이론 검증 : 성별사회정체성과 성평등 의식

성별사회정체성이 성평등 의식을 예언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고, 성별집단 정체성을 2단계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통제변인들 가운데는 지역규모,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등의 순으로 성평등 의식을 유의하게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체변량의 7.8%를 설명하였다. 이에 성별사회정체성을 추가하였을 때 성평등 의식의 설명 변량에서 13.6%의 증분을 보였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2단계에 투입된 성별사회정체성은 성평등 의식을 부적으로 유의하게 예언하였다. 즉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을수록 성평등 의식이 낮아졌다. 따라서 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별사회정체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관련 변수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남성의 성별지위에 대한 지각과 지위 합법성 및 안정성의 사회구조 요인이 성별사회정체성과 어떤 관련

표 3. 성평등 의식에 대한 성별사회정체성의 중다예언

	B	오차	β	t	p
1단계					
지역규모	.046	.017	.092	2.73	.006
연령대	-.053	.012	-.194	-4.46	.000
교육수준	.036	.017	.080	2.10	.037
결혼상태	-.013	.032	-.017	-.413	.679
고용형태	.005	.008	.022	.630	.529
월평균가구소득	.030	.011	.103	2.87	.004
R=.291, R²=.085, adj R²=.078***					
2단계					
성별사회정체성	-.258	.022	-.378	-11.88	.000
R=.470, R²=.220, adj R²=.214, ΔR²=.136***					

*** $p<.001$

성을 맺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성별사회정체성을 준거변인으로 삼고,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고, 이어서 성별지위, 합법성, 안정성을 예언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중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단계의 통제변인들이 성별사회정체성을 예언하는 정도는 응답자의 지역 규모, 연령, 고용형태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연령대 변인의 영향이 두드러졌다. 이들 통제변인이 전체변량을 설명하는 정도는 4.6%였다. 2단계의 사회구조 요인이 투입되었을 때 성별사회정체성을 설명하는 변량은 20.0%로, 15.4%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분을 보였다.

이 분석에서 주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사회구조 요인들이 성별사회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사회구조 요인들 가운데 성별사회정체성에 가장 큰 영향을 보이는 것은 성별지위의 합법성이었고, 그 다음으로 성별 지위에 대한 지각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지위의 합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즉 응답자들은 남성의 높은 지위가 합법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았고, 지위지각 역시 성별사회정체성에 대해 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남성의 성별지위를 높게 지각할수록 성별사회정체성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성별지위의 안정성 요인은 성별사회정체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세를 보이는데 그쳤다. 이러한 경향성은 김금미 등(2003)의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와 일관된다.

표 4. 성별사회정체성에 대한 지위, 합법성, 안정성의 중다예언

	B	오차	β	t	p
1단계					
지역규모	-.070	.019	-.096	-3.72	.000
연령대	.067	.013	.169	5.10	.000
교육수준	-.035	.019	-.054	-1.82	.064
결혼상태	-.037	.037	-.030	-0.95	.330
고용형태	-.032	.009	-.090	-3.48	.001
월평균가구소득	-.001	.010	-.002	-0.08	.938
R=.222, R²=.049, adj R²=.046**					
2단계					
지위	.190	.025	.179	7.51	.000
합법성	.327	.025	.319	12.92	.000
안정성	.048	.027	.044	1.815	.070
R=.453, R²=.205, adj R²=.200, ΔR²=.154***					

* $p < .05$, *** $p < .001$

추가로, 변인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유의한 추세에 그친 안정성 요인을 제외하고 지위 및 합법성의 두 요인과 성별사회정체성이 남성의 성평등 의식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집단지위와 지위 합법성을 각각 평균으로 분할하여 고저 집단으로 나누고, 집단지위×합법성이 성별사회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합법성×성별사회정체성이 성평등 의식에 미치는 영향, 집단지위×성별사회정체성이 성평등 의식에 미치는 영향 및 집단지위×합법성이 성평등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먼저 성별사회정체성에 대한 지위와 합법성의 효과를 알아본 결과, 지위가 낮을 때($M=2.66, SD=.43$)보다 높을 때($M=2.85, SD=.48$) 성별사회정체성이 유의하게 높았으며($F(1, 1015)=33.33, p<.001$), 합법성이 낮을 때보다($M=2.65, SD=.45$) 높을 때($M=2.98, SD=.44$) 성별사회정체성이 유의하게 높았다($F(1, 1015)=103.48, p<.001$). 하지만 지위×합법성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F(1, 1015)=1.44, n.s.$).

성별 집단에 대한 지위의 합법성 지각이 성평등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성별사회정체성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합법성과 성별사회정체성의 상호작용을 알아본 결과, 합법성의 주효과가 유의했고($F(1, 1015)=114.60, p<.001$), 성별사회정체성의 주효과도 유의했다($F(1, 1015)=97.96, p<.001$). 즉 합법성이 낮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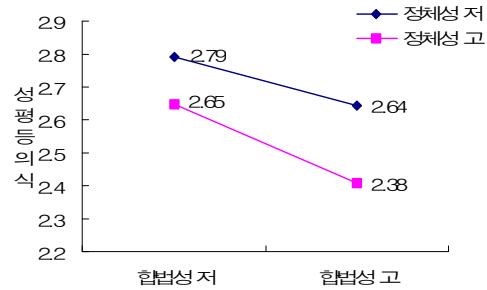


그림 2. 성평등 의식에 대한 합법성과 성별사회정체성의 상호작용

($M=2.74, SD=.28$) 보다 높을 때($M=2.45, SD=.31$) 성평등 의식이 낮았다. 또한 성별사회정체성이 낮을 때($M=2.76, SD=.28$) 보다 높을 때($M=2.51, SD=.32$) 성평등 의식이 낮았다. 이에 더하여 합법성과 성별사회정체성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했다($F(1, 1015)=9.04, p<.01$) (그림 2 참조).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단순주효과 분석 결과, 합법성이 낮을 때($F(1, 625)=36.22, p<.001$)와 높을 때($F(1, 389)=59.12, p<.001$) 모두 성별사회정체성에 따른 차이가 유의해서, 상호작용효과는 합법성이 높을 때 성별사회정체성에 따른 차이가 더 커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또한 네 조건을 비교해 볼 때, 합법성이 높고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을 때 성평등 의식이 가장 낮았다.

또한 집단지위에 대한 지각이 성평등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성별사회정체성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위와 성별사회정체성의 상호작용을 알아본 결과, 지위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F(1, 1015)=2.47, n.s.$), 성별사회정체성의 주효과는 유의했다($F(1, 1015)=142.89, p<.001$). 즉 성별사회정체성이 낮을 때보다($M=2.76, SD=.28$) 높을 때($M=2.51, SD=.32$) 성평등 의식이 낮았다. 지위의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서, 이 연구가 남성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이 연구에서 저지위라고 표기되었더라도 여성에 비해 남성의 지위가 낮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성에 비해 남성의 지위가 비교적 덜 낮다고 지각하는 정도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집단의 지위 지각은 성별사회정체성과는 관련되지만 성평등 의식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집단 지위와 성별사회정체성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F(1, 1015)=1.14, 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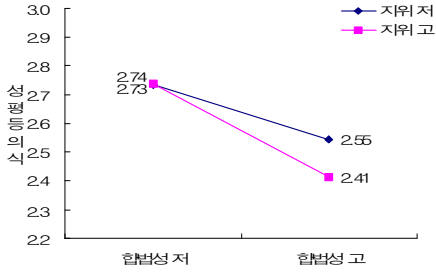


그림 3. 성평등 의식에 대한 성별지위와 합법성의 상호작용

한편 성평등 의식에 대한 지위 지각과 지위의 합법성의 효과를 알아본 결과 지위의 주효과($F(1, 1015)=10.15, p<.001$)와 합법성의 주효과($F(1, 1015)=167.32, p<.001$)가 유의했다. 성별 집단의 지위가 낮다고 지각할 때 ($M=2.67, SD=.29$)보다 지위가 높다고 지각할 때 ($M=2.59, SD=.34$), 그리고 합법성이 낮을 때 ($M=2.74, SD=.28$)보다 높을 때 ($M=2.45, SD=.31$) 성평등 의식은 유의하게 낮았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단순주효과 분석 결과, 합법성이 낮을 때는 지위 고저 간에 성평등 의식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고 ($F(1, 625)=.08, n.s.$), 합법성이 높을 때는 성평등 의식에서 지위의 차이가 유의했다 ($F(1, 389)=15.77, p<.001$). 또한 남성의 지위에 대한 합법성이 높고 지위가 높다고 지각할 때 성평등 의식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 결과로 볼 때 남성의 성별사회정체성과 성평등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사회구조 요인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뚜렷한 합법성의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다시 말하면, 그림 2와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합법성이 높고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은 조건과 합법성이 높고 지위가 높다고 지각하는 조건에서 남성의 성평등 의식이 가장 낮았으므로, 남성의 성평등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지위에 대한 합법성에 대한 인식을 낮추는 방향의 접근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계획된 행동이론

성평등 행동 추구 경향성으로서 성평등 의식이 성평등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 통제감 및 도덕적 책무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성평등 행동을 직접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행동의도를 최종 종속변인으로 하여 관련 요인들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1단계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통제요인으로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성평등 태도를 예언변인으로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감, 도덕적 책무감을 투입하여 행동의도를 얼마나 예언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행동의도를 설명하는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 교육수준, 고용형태 순으로 행동의도를 잘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주요한 변인을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성평등 행동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변인들은 성평등 행동의도 가운데 10.9%를 설명했다. 2단계에 투입된 성평등 태도는 행동의도와 정적 관계가 있어서, 성평등 태도가 높을수록 성평등 행동의도가 높았다. 성평등 태도가 투입됨으로써 행동의도에 대해 34.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단계에 비해 23.8%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 변량의 증분량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이 분석의 관심사가 되는 3단계에서 투입된 예언변인들을 살펴보면, 세 가지 예언변인인 주관적

표 5. 주관적 규범, 행동 통제감, 도덕적 책무감에 의한 행동의도의 중다예언

	B	오차	β	t	p
1단계					
지역규모	.038	.020	.063	1.90	.057
연령대	-.086	.014	-.264	-6.18	.000
교육수준	.063	.020	.117	3.08	.002
결혼여부	.034	.038	.036	0.90	.370
고용형태	.021	.010	.070	2.08	.038
월평균가구소득	.020	.012	.058	1.64	.101
R=.339, R²=.115, adj R²=.109***					
2단계					
성평등 태도	.607	.035	.510	17.28	.000
R=.594, R²=.353, adj R²=.348, $\Delta R^2=.238$***					
3단계					
주관적 규범	-.066	.027	-.073	-2.18	.028
행동 통제감	.234	.027	.264	8.64	.000
도덕적 책무감	.122	.021	.158	5.76	.000
R=.674, R²=.455, adj R²=.448, $\Delta R^2=.102$***					

***p<.001

규범, 행동 통제감, 도덕적 책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계수를 보였다. 이들 세 가지 변인이 투입되었을 때, 행동의도를 설명하는 데 10.2%의 증분량을 보였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는 행동 통제감이 행동의도를 가장 잘 예언하였고, 도덕적 책무 그리고 주관적 규범의 순으로 행동의도를 잘 설명하였다. 즉 행동 통제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도덕적 책무를 높게 지각할수록 성평등 행동의도가 높았고, 주위 인물에 의한 규범적 압력을 크게 지각할수록 성평등 행동의도가 낮았다. 3단계까지 투입한 결과 성평등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 통제감, 도덕적 책무감은 성평등 행동의도의 44.8%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의 성평등 행동의도를 높이기 위해서 성평등 행동에 대한 용이성을 높여 주어 통제감을 갖도록 하거나 도덕적 책무감을 고취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주위의 성불평등적 규범적 압력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을 강구하거나 이를 극복하도록 교육시키는 방안들을 고려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사회정체성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의 통합

지금까지 제시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공변량 구조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에 앞서 자료가 구조모형의 분석에 적합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준거변인을 행동의도로 하고 예언변인들 간의 다

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이 분석에서 잔여분산(tolerance)은 .665~.966으로 1에 가까웠고, 분산팽창요인(VIF)은 1.036~1.504로 기준인 10보다 상당히 낮았다. 따라서 독립변인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가설적 모형에 제시된 구성개념들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공변량 구조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4에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가설적 종합모형의 전반적 합치도 지수는 표 6에 제시하였다. NFI는 .911, NNFI는 .896, GFI는 .949, CFI는 .920으로 거의 모든 부합도 지수가 .90을 넘었고, RMSEA는 .08로서 .05에 근사치를 보였으므로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을 지지해 주는 결과라고 해석 할 수 있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들은 성별 집단으로서 남성의 지위가 여성보다 높다고 지각할수록, 그리고 지위의 합법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았다. 또한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을수록 성평등 태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예언되었다. 또한 지위가 여성보다 높다고 지각할수록, 합법성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그리고 지위의 안정성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성평등 태도가 높았다. 한편 성평등 태도가 높을수록 성평등 행동을 하려는 의도가 높아지지만, 이들 경향성의 상당 부분은 행동에 대한 통제감 지각과 도덕적 책무 및 주관적 규범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었다. 즉 행동 통제감이 높고, 성평등 행동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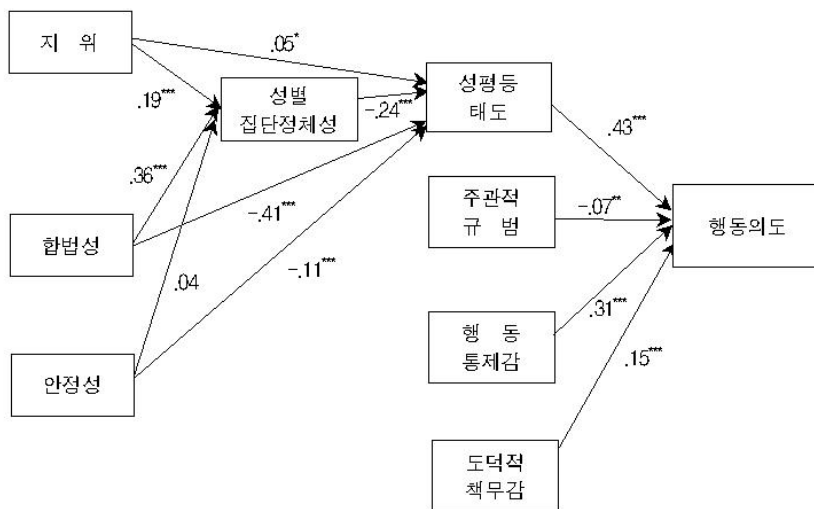


그림 4. 행동의도 관련 선행요인들에 관한 사회정체성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의 통합모형 검증

표 6. 가설적 종합모형에 대한 공변량 구조 분석의 부합도 지수

	χ^2	NFI	NNFI	GFI	RMSEA	CFI
모형	134.67(df=19)	.911	.896	.949	.08	.920

한 도덕적 책무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성 평등한 행동을 하려는 의도가 높아지는 반면, 주변의 중요 인물들의 규범적 압력을 의미하는 주관적 규범 지각이 클수록 성평등 행동의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성평등 의식의 형성요인으로서 양육환경

참고로 성평등 형성배경을 알아 보기위해, 자신이 남성으로서 성평등 의식을 갖게 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곳이 가정, 학교, 군대, 직장, 매스컴, 및 기타 가운데 어디인지를 물었다. 그 결과 성평등 태도를 갖는 데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곳이 가정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수가 51.3%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군대 20.7%, 직장 15.1%, 학교 6.1%, 매스컴 5.3%의 순이었다. 이는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 독특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군대 경험이 남성 중심의 문화로서 남성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사적 영역으로서 가정과, 공적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군대 및 직장이 성평등 의식 형성에 중요하고, 여전히 남성성과 여성성의 이분법적인 성평등 의식 구조가 강조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준다.

또한 성평등 의식이 양육환경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어린 시절의 성평등적 양육환경과 성평등 의식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을 보면 ‘아들과 딸을 차별하여 키웠다’가 성평등 의식과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아버지 가사 참여, 평등한 부부관계의 순으로 상관이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들과 딸을 차별한 부모 아래 양육된 사람일수록 성평등 의식이 낮다는

표 7. 성평등 양육 환경과 성평등 의식간의 상관

	1	2	3
1. 성평등 의식	1		
2. 아버지가 가사 일을 적극적으로 도우셨다	.098**	1	
3. 부모님은 아들과 딸을 차별하여 키웠다	-.205***	-.200***	1
4. 부모님은 평등한 부부관계였다	.087**	.450***	-.203***

** $p < .01$, *** $p < .001$

점을 보여주고, 생애초기의 사회화 과정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이후의 성평등 의식이나 행동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특히 역할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부모를 통한 관찰학습이 성평등 행동에 중요함을 시사한다.

논 의

성평등이라는 가치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원만하게 형성되지 못한다면 여성에 대한 차별해소나 사회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과 정책들은 제대로 실행되기 어렵고, 실행되더라도 그 실효성은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성평등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중요한 과제로 보고, 그 과정의 하나로서 젠더파트너십에 주목하였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처한 사회구조적인 불평등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젠더파트너십은 남성들의 높은 성평등 의식과 성평등 행동의 실천가능성을 전제로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젠더파트너십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사회구조 요인, 성평등 의식, 그리고 행동의 실천에 이르는 일관된 설명모형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사회정체성과 성평등 의식의 관계, 성평등 의식과 행동의도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회정체성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의 통합 모형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간략히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의 경우 성별사회정체성이 성평등 의식과 부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며,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을수록 성평등 의식이 낮았다. 이에 앞서 사회구조 요인으로서 성별지위, 합법성, 안정성이 성별사회정체성의 증가를 예언해 주고

있다. 사회구조 요인들 가운데 지위에 대한 합법성 요인이 성별사회정체성 증가에 가장 큰 기여를 하였고, 그 다음으로 성별 지위에 대한 지각이 높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특히 합법성 요인의 영향이 두드러졌는데, 성별지위에 대한 합법성을 높게 지각하고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은 남성들의 성평등 의식이 가장 낮았다. 또한 남성의 성별지위가 여성보다 높고 그 합법성도 높다고 지각하는 남성들의 성평등 의식 역시 낮았다. 따라서 남성들에게 있어서 성별사회정체성이 성평등 의식과 부적인 관계에 있음을 고려할 때, 성별 지위의 합법성을 낮추고 지위 지각 요인의 영향을 약화시키는 것이 남성들의 성평등 의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둘째, 계획된 행동모형에 따라 성평등 태도와 행동의도 간의 관계를 검토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성평등 태도가 높을수록, 성평등 행동에 대한 통제감이 높을수록, 그 행동에 대한 도덕적 책무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그리고 주변의 압력을 적게 지각할수록 성평등 행동의도가 높았다. 특히 행동의도에 미치는 성평등 태도와 행동 통제감의 영향이 컸다. 따라서 성평등 의식이 실제 행동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남성으로 하여금 성평등 행동에 대한 통제감과 통제 효능감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울러 성평등의 도덕적 당위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방안이나 성평등 행동의 실천 의지를 위축시키는 주변의 시선이나 가부장적 규범의 압력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공변량 구조 분석을 통한 모형검증에서 사회정체성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 관련 변인들의 행동의도에 대한 인과적 관계를 알아보았다. 검증결과 가설적 모형은 비교적 양호한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구조 요인인 지위에 대한 합법성, 성별지위, 안정성의 순으로 이들 요인은 성별사회정체성과 성평등 의식을 유의하게 예언하였으며, 성별사회정체성은 앞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성평등 의식을 부적으로 예언하였다. 또한 성평등 태도가 높을수록 성평등 행동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예언되었다. 이 과정에서 행동 통제감과 도덕적 책무는 행동의도와 정적으로, 주관적 규범은 부적으로 관련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구조 요인 가운데 안정성, 계획된 행동이론 가운데 주관적 규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기대와 달리 안정성의 효과는 유의한 추세만 보였는데,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정체성 모형을 검증한 연구(김금미 등, 2003)에서도 일관된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와 달리 성별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 특히 남성들의 경우에는 안정성 요인이 사회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 같다. 다른 집단 범주와 달리 성별 범주는 생득적으로 부여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뀌지 않으며, 문화의 지속적 특성에 따라 집단의 지위에 따른 안정성도 대체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여성의 상대적 지위 변동이 남성 정체감에 대한 위협으로 지각될 수 있으나, 언급한 바와 같이 성별지위는 급격히 변화되지 않으며 개인의 의지에 달린 문제도 아니어서 성별 지위의 안정성 지각이 남성으로서의 성별 정체성 지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주관적 규범의 약한 영향에 관해서는 다음 절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성평등 의식 형성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성역할 태도를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가정이었다. 다음으로 군대와 직장의 영향이 컸다. 이 결과로 볼 때 가정, 군대 그리고 직장이 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지점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성평등적인 양육환경과 성평등 의식의 관계를 검토한 분석에서 부모의 성역할이 다음 세대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아들과 딸을 차별하여 키우는 부모 아래 양육된 사람일수록 성평등 의식이 낮았다.

모형 통합과 관련한 이슈들

전술한 바와 같이 통합된 모형을 공변량 구조분석을 통하여 검증한 결과에서 주관적 규범의 영향력이 비교적 낮았다. 이는 Amitage와 Conner(2001)의 메타분석에서 지적된 바와 일관되며, 주관적 규범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하여 사회와 집단의 영향을 강조하는 변인들을 추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면, McMillan과 Conner(2003)는 음주/흡연과 같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을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주관적 규범과 함께 파트너를 비롯한 중요한 타인들이 실제로 음주와 흡연을 하는지와 같은 기술적 규범, 자신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

는 것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한 도덕적 규범을 모형에서 함께 측정하였는데, 음주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주관적 규범과 기술적 규범이 유의했고, 도덕적 규범은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 한편 Bliuc, McGarty, Reynolds 및 Muntele(2007)은 투표행동과 관련하여, '나는 나와 같은 당에 투표할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다'와 같은 동일시 문항들이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다고 밝히면서, 예측하고자 하는 행동과 가장 관련된 집단에 대한 동일시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더하여 주관적 규범의 설명 이후에 기술적 규범과 집단 규범이 의도를 얼마나 더 설명하는지 알아보고, 준거집단의 관련 행동에 대한 지각된 집단규범이 관련 준거집단에 강하게 동일시하는 사람들의 피입의도를 설명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Fekadu와 Kraft(2002)는 아디스아바바와 에티오피아에 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피입의도에 관련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주관적 규범은 물론, 기술적 규범과 집단규범이 의도를 설명하였고 설명량도 태도나 지각된 행동 통제보다 컸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연구자들은 개인적인 측면보다 사회적인 측면이 이 지역 여성들의 피입의도를 잘 설명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집단 동일시와 사회적 영향과 관련한 다른 측면들은 유의하지 않았고, 집합적 자기는 의도로 가는 직접 변인으로서나 사회적 규범에서 의도로 가는 경로의 조절 변인으로서 어느 것도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법 이용에 관련된 사회정체성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의 통합을 시도한 Fielding, Terry, Masser 및 Hogg(2008)의 연구에서도 과거행동, 태도와 지각된 행동 통제가 의도를 설명했고, 집단 규범과 집단간 지각도 유의했다. 그런데 이 때 집단간 지각의 측정 문항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집단간 맥락에 대한 지각, 즉 도시와 지방을 하나로 볼 것인지 두 개로 볼 것인지와 같은 집단간 맥락의 특출성 측면을 평가하는 두 개의 문항, 그리고 두 집단간의 권력 차이를 평가하는 세 개 문항과 합법성의 측면을 측정하는 여섯 개 문항으로 측정하고 있으나, 이 문항들이 단일 요인으로서 적합한지에 관한 신뢰도 분석이나 요인분석의 결과를 제시하지 못 하였다. 연구 2의 결과에서 집단규범과 집단간 지각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경향이 있었고, 집단에 높게 정체화되고, 집단간 지각이 부적일 때 행동의도가 가장

높았다. 또한 집단 정체성과 집단 규범의 상호작용도 유의한 경향이 있었는데 집단에 대한 정체성이 높고 집단 규범 지각도 높은 집단이 행동의도가 높았다. 비록 상호작용이 유의한 경향에 그치긴 했지만,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계획된 행동이론에 대한 사회정체성 개념의 포함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체성이론의 핵심적인 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정체성을 계획된 행동이론에 추가하였다. 사회적 지지, 집단 규범 등의 변인을 모두 다루지 못했으나, 선행연구(예컨대, 김금미, 한영석, 2002; 김금미, 한덕웅, 한영석, 2003)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의 사회정체성 개념은 집단몰입, 집단 자존심, 집단범주화 요인으로 구성된 변인으로서 오히려 사회정체성이론의 핵심에 더 가깝다고 여겨진다. 또한 이러한 사회정체성 요인을 태도의 선행변인으로 두었다는 점이 이전의 다른 통합 모형과 차이점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도 앞서 언급한 연구들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사회정체성에서 의도로 이어지는 직접 경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Fielding 등(2008)의 연구에서 집단간 지각 변인이 사회구조 요인으로서 합법성 요인, 지위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됨에 따라서, 사회구조 요인들이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이를 위해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단계로 통제변인들을, 2단계로 사회구조 요인들을, 마지막 3단계로 성별 사회정체성을 추가하여 행동의도를 설명하는 모형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1단계의 통제변인들은 행동의도를 11.5%의 설명하였다. 또한 2단계의 사회구조 요인을 투입하였을 때 행동의도를 설명하는 변량은 27.7%로서 1단계에 비해 17.0%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분을 보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 성별사회정체성을 투입하였을 때 1.7%의 유의한 증분을 보였고, 전체적으로 29.3%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공변량 구조 분석에서는 성별사회정체성에서 의도로 연결되는 직접 경로를 가정하지 않았고,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성별사회정체성에서 의도로 가는 직접 경로가 유의하지만 미약한 증분을 보이는데 그쳤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성별사회정체성에서 의도로 연결되는 직접 경로를 가정할 수 있고, 행동의도가 인지적 정체성 관리전략의 일부로 개념화 될 수 있다는

표 8. 사회구조 요인 및 성별사회정체성에 의한 행동의도의 중다예언

	B	오차	β	t	p
1단계					
지역규모	.038	.020	.063	1.90	.057
연령대	-.086	.014	-.264	-6.18	.000
교육수준	.063	.020	.117	3.08	.002
결혼상태	.034	.038	.036	.90	.370
고용형태	.021	.010	.070	2.08	.038
월평균가구소득	.020	.012	.058	1.64	.101
R=.339, R²=.115, adj R²=.109***					
2단계					
지위	.088	.026	.104	3.42	.001
합법성	-.315	.025	-.394	-12.51	.000
안정성	-.085	.027	-.095	-3.09	.002
R=.534, R²=.285, adj R²=.277, ΔR²=.170***					
3단계					
성별사회정체성	-.119	.027	-.146	-4.41	.000
R=.550, R²=.302, adj R²=.293, ΔR²=.017***					

***p<.001

점에서, 추후 연구에서는 성별정체성에서 의도로 연결되는 경로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연결되는 직접경로도 추가한 모형을 검증함으로써 정체성 관리 전략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 밖에 모형 통합과 관련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이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집단 규범, 과거 행동, 자기 정체성,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 등의 여타 변인들을 추가하여 수정 모델을 검증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정체성의 요인을 집단 몰입, 집단자존심, 집단범주화로 구분하여 선행연구들의 다양한 변인들과 관련지어 연구하는 것도 추후 연구로서 흥미로운 일이다. 이때 두 모델의 변인을 동시에 다룬다면 변인들의 의미상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Giles, McClenahan, Cairns 및 Mallet (2004)의 연구에서 자기정체성은 스스로가 어떤 사회적 역할의 준거를 충족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정도를 보여준다. 예를 들면 자기정체성은 ‘헌혈을 하는 것이 나의 중요한 부분이다’와 같은 문항으로 측정된다. 한편 사회정체성의 집단 자존심 요인은 ‘내가 남성이라는 사실이 나에게 중요하다’와 같은 문항으로 측정한다. 그 대상이 개인적 활동인가 집단인가에서만 차이가 있으므로 특정 대

상에 적용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비교적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합법성 요인의 효과가 성평등의 주제에만 한정된 것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즉 다양한 행동 영역에 통합 모형을 적용하여 합법성의 효과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모형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공변량 구조 분석 모형에서 주관적 규범의 낮은 영향력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를 추정할 수 있지만, 사회정체성과 계획된 행동이론을 통합한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그 주된 이유로서 사회정체성의 영향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성별사회정체성에 따라 주관적 규범의 영향이 달리 나타나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는 사회정체성이론과 계획된 행동모형의 통합을 추구하면서 모형에서 성별사회정체성의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과도 부합된다.

이를 위하여 성별사회정체성 점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성별사회정체성이 낮은 남성과 높은 남성을 분리하여 각각 공변량 구조 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그 결과 주관적 규범은 성별사회정체성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쳤다. 성별사회정체성이 낮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검증에서 주관적 규범이 행동의도를 예언하는 정도는 β -.16, p <.001로 증가하였으며, 도덕적 책무와 행동 통제감은 각각 β -.19, β -.35로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성별사회정체성이 낮은 남성의 경우 주관적 규범을 크게 지각할수록 행동의도가 낮아지며, 도덕적 책무나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크게 지각할수록 성평등 행동의도가 높아졌다. 반면에 사회구조 요인인 지위, 합법성, 안정성이 성별사회정체성을 예언하는 정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검증에서는 주관적 규범의 경로계수는 β -.01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마찬가지로 도덕적 책무, 행동 통제감 요인의 경로계수도 약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반면에 사회구조 요인의 회귀계수는 성별사회정체성의 증가를 더 잘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들이 시사하는 바는 성평등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은 사람의 경우는 사회구조 요인의 영향을 약화시키는 방법을 통해 성별사회정체성을 낮추고, 성별사회정체성이 낮은 사람의 경우는 규범적 압력을 극복하거나 도덕적 책무 및 행동에 대한 통제감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Terry와 Hogg(1996)는 친구나 동료의 집단 규범이 운동을 할 것이라는 예측치를 향상시켜주고, 그것은 특히 집단에 강하게 동일시하는 개인에게서만 적용되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 집단의 사회정체성이 강할 때는 사회정체성의 선행변인들이, 남성 집단에 사회 정체성이 약할 때는 계획된 행동이론 변인들, 특히 주관적 규범의 영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본 연구와 일관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 속에 사회적/집합적인 변인을 삽입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별사회정체성에 따라 주관적 규범을 비롯한 전체 모형의 경로 계수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이는 면에서 그 의의가 더 크다고 생각된다.

시사점 및 제한점

지금까지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남성과 여성의 지위 및 성별사회정체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의 현실적인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 남성들은 남성 집단의 지위를 높게 지각할수록, 남성의 우월한 지위가 합법적이라고 생각할수록 남성으로서의 집단사회정체성을 더 강하게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현재 지위가 여성보다 높고 또 남성의 높은 지위가 합법적인 것이라고 믿을수록 개인 정체성보다는 남성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으로서의 사회 정체성에 의존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정체성이론에 따르면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은 남성은 남녀 간의 문제를 개인수준에서보다는 집단수준의 성별 간 경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고, 여성을 차별하거나 남성에게 유리한 사회비교를 통해 남성으로서 자존심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은 남성들은 남성의 지위를 여성보다 높게 인식하는가 혹은 낮게 인식하는가에 상관없이 성평등 의식이 낮았고, 본 연구에서는 지위와 성별 사회정체성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인식하면서 자신을 남성으로 정체화하는 수준이 낮은 조건에서 성평등 경향성이 가장 높다는 점은 김금미 등(2003)의 연구와 일관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젠더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해서 남성의 성별사회정체성이 중요하고, 성별사회정체성을 높이거나 낮추는 데 관련된 요소, 특히 지위에 대한 지각에 관심을 기

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결과이다.

한편 남성으로서 정체성이 높고 남성의 지위에 대해 합법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성평등 의식이 가장 낮았다. 합법성, 권력, 집단간 관계의 개념이 포함된 집단간 지각과 사회정체성에 따른 행동의도를 알아본 연구(Fielding et al., 2008)에서도 유사한 상호작용 경향이 나타났다는데, 높은 정체성을 지닌 상대집단에 대한 부적 집단간 지각자(즉 합법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들)의 행동의도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일관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성평등 의식과 행동의도를 높이기 위해 상대적 우위 집단의 합법성을 낮추거나 성별사회정체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남성의 지위가 여성의 지위보다 높고 그러한 남성의 우월한 지위가 합법적이라고 응답한 남성들은 성평등 의식이 가장 낮았다. 이는 남성들이 여성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누리는 우월한 지위가 마땅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바뀌어 합법적 권리를 침해 받고 있다는 왜곡된 지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이 결과는 이들에게 남성이 성별관계에서 누리는 높은 지위가 정당하고 합법적인 근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인식시킬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왜곡된 지각과 갈등을 바로잡고 해소하는 노력이 젠더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해 중요한 과제이다.

주관적 규범의 약한 설명력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알아보고 성별사회정체성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 성별사회정체성이 낮은 남성들의 주관적 규범, 행동 통제감 및 도덕적 책무감이 행동의도를 예언하는 정도는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은 남성들의 경우보다 매우 높았으나, 사회구조 요인의 영향은 비교적 적었다. 반대로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은 남성들의 경우, 사회구조 요인이 성별사회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컸으나, 행동의도에 관여되는 주관적 규범의 경로 계수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결과에 비추어 보면, 성별사회정체성이 낮은 남성들에게 성평등 의식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규범, 행동 통제감, 도덕적 책무감을 강조하는 젠더파트너십 구축 전략이 필요하고,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은 남성들에게는 사회구조 요인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남성의 성평등 행동의도를 예측하기 위하여 여성과 비교한 남성의 지위에 대한 남성의 지위 고저 지각, 지위에 대한 합법성 지각, 지위에 대한 안정성 지각과 같은 사회구조 요인으로부터 성별사회정체성, 인지적인 개인 집합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성평등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이러한 태도가 행동의도로 나타나기까지 사회적인 규범과 행동 통제감에 대한 지각 및 도덕적 책무감의 영향을 순차적으로 알아보고, 사회심리학적으로 지지 기반이 높은 두 이론의 통합 가능성을 기해 본 데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모형 통합에 따른 추후 연구 과제들 외에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체성 관리 전략을 인지/행동 측면으로 나누어 이 가운데 인지적 측면이 성평등 행동을 향한 태도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행동 측면은 행동의도 다음에 위치하는 행동에 해당될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계획된 행동이론을 전체적으로 검증하지 못하고, 성평등 행동의도까지만 측정하여 연구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행동의도가 직접 행동으로 연결되는 데는 제한이 따르고, 사회정체성 관리 전략 가운데 행동 측면도 다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행동까지의 관계를 포함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대체로 고지위에 해당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에서 ‘저지위’ 집단이 포함되었다하더라도 이 집단은 여성에 비해 남성의 지위가 낮다고 보는 경향이 아니라, ‘다른 남성에 비해 남성의 지위가 여성보다 덜 높다’고 본다는 의미일 뿐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성평등 의식의 원인(遠因)으로서 양육 환경을 참고적으로 다루었으므로 모형 검증에서는 제외하였다. 그러나 성평등적 양육 환경에 따라 성평등 의식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검토되었으므로 모델에 포함되는 것이 절약적인 설명이 될지는 추후 연구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설문지 문항 구성의 제한으로 인해 신뢰도가 .61~.70에 해당하는 요인이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신뢰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문항을 추가하거나 더 적합한 문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참 고 문 헌

- 김금미 (2001). 집단의 사회정체성과 지위에 따른 내집단 편애-성별집단과 최소집단에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금미, 한덕용, 한영석 (2003). 남성의 성별관계 인식과 성별사회정체성이 양성평등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1), 31-47.
- 김금미, 한덕용 (2001). 여성의 성별사회정체성과 남녀 간 경쟁전략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2), 15-38.
- 김금미, 한영석 (2002). 여성의 합법성, 안정성 및 성별사회정체성이 양성평등신념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여대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7(3), 1-20.
- 김금미, 한영석 (2003). 남성의 양성평등행동의 설명: 계획된 행동이론의 적용.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 발표논문집, 233-234.
- 김명소, 김금미, 한영석 (2004). 남성의 양성평등행동에 대한 합리적 행위이론 및 계획된 행동이론의 적용: 도덕적 책무의 역할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1), 1-21.
- 김양희, 정경아 (2000).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4(1), 23-44.
- 김금미, 정해숙, 정경아 (2007). 공무원의 양성평등행동의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연구, 72(1), 189-223.
- 정진경 (1990). 한국성역할검사(KSRI).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5, 82-91.
- 한덕용 (1996). 집단 행동 이론의 비판적 개관(II): 집단 간 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0(1), 39-84.
- 한덕용 (2002). 집단행동이론. 서울: 시그마프레스.
- 한덕용, 성한기, 강혜자, 이경성, 최훈석, 박근석, 김금미, 장은영 (2005). 사회심리학. 학지사.
- 한덕용, 이민규 (2001). 계획된 행동이론에 의한 음주운전 행동의 설명.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41-158.
- Ajzen, F., & Madden, T. (1986). Prediction of goal-

- directed behavior : Attitudes, intentions and perceived behavior control.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2, 453-474.
- Ajzen, I. (1988). *Attitudes personality, and behavior*. Chicago : Dorsey.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179-211.
- Armitage, C. J., & Conner, M. (2001). Efficacy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 A meta-analytic review.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 471-499.
- Blanz, M., Mummendey, A., Mielke, R., & Klink, A. (1998). Responding to negative social identity : A taxonomy of identity management strategi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8, 697-729.
- Bliuc, A., McGarty, C., Reynolds, K., & Muntele, D. (2007). Opinion-based group membership as a predictor of commitment to political ac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7, 19-32.
- Ellemers, N. (1993). The influence of socio-structural variables on identity management strategies. In W. Stoebe, & M. Hewstone(Ed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Vol.4, 27-57). Chichester : Wiley.
- Ellemers, N., Spears, R., & Doosje, B. (1997). Sticking together or falling apart : In-group identification as a psychological determinant of group commitment versus individual mo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3), 617-626.
- Fekadu, Z., & Kraft, P. (2002). Expand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 The role of social norms and group identificatio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7, 33-43.
- Fielding, K. S., Terry, D. J., Masser, B. M., & Hogg, M. A. (2008). Integrating social identity theory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to explain decisions to engage in sustainable agricultural practice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7, 23-48.
-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New York : Wiley.
- Forsyth, D. R. (1999). *Group dynamics* (3rd Ed.). Belmont, CA :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Giles, M., McClenahan, C., Cairns, E., & Mallet, J. (2004).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to blood donation : The importance of self-efficacy. *Health Education Research*, 19(4), 380-391.
- Hamilton, G., & White, K. M. (2008). Extend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 The role of self and social influences in predicting adolescent regular moderate-to-vigorous physical activity.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30, 56-74.
- Jackson, L. A., Sullivan, L. A., Harnish, R., & Hodge, C. N. (1996). Achieving positive social identity : Social mobility, social creativity, and permeability of group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241-254.
- Karasawa, M. (1991). Toward and assessment of social identity : The structure of group identification and its effects on in-group evaluation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0, 293-307.
- Lalonde, R. N., & Silverman, R. A. (1994). Behavioral preferences in response to social injustice : The effects of group permeability and social identity sali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1), 78-85.
- McMillan, B., & Conner, M. (2003). Us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to understand alcohol and tobacco use in students. *Psychology, Health & Medicine*, 8(3), 317-328.
- Mummendey, A., Kessler, T., Klink, A., & Mielke, R. (1999a). Strategies to cope with negative social identity : Predictions by social identity theory and relative deprivation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2), 229-245.
- Mummendey, A., Klink, A., Mielke, R., Wenzel, M., & Blanz, M. (1999b). Socio-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intergroup relations and identity management

- strategies : Results from a field study in East German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9, 259-285.
- Mummendey, A., Mielke, R., Wenzel, M., & Kanning, U. P. (1996). Social identity of East Germans : The process of unification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as a challenge to cope with 'negative social identity'. In G. Breakwell & E. Lyons (Eds), *Changing European identities : Social psychological analyses of social change*(pp.405-428). Oxford; Butterworth-Heinemann.
- Norman, P., & Smith, L. (1995).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nd exercise : An investigation into the role of prior behavior, behavioral intentions and attitude variabilit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5, 403-415.
- Ruxton, S. (2004), *Men, masculinities, and poverty in the UK*, Oxford : Oxford GB.
- Tajfel, H. (1982).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3, 1-39.
- Tajfel, H., & Turner, J. C.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S. Worchel & W. G.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2nd ed., 7-24).
- Taylor, D. M., & Moghaddam, F. M. (1987). *Theories of intergroup relations : International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s*. New York : Praeger. Chicago : Nelson-Hall.
- Terry, D. J., & Hogg, M. A. (1996). Group norms and the attitude-behavior relationship : A role for group identific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 776-793.
- White, K. M., Hogg, M. A., & Terry, D. J. (2002). Improving attitude-behavior correspondence through exposure to normative support from a salient ingroup.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4, 91-103.
- World Economic Forum (2008).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08*. Switzerland Geneva : WEF.
- Zomeran, M. V., Postmes, T., & Spears, R. (2008). Toward an integrative social identity model of collective action : A quantitative research synthesis of three socio-psychological perspectives. *Psychological Bulletin*, 134(4), 504-535.

Integration of Social Identity Theory and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Explaining Gender Equality Action Intention of Korean Male Adults

Keum-mi Kim

Sungkyunkwan University

Sang-Su Ahn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1) investigate the role of gender social identity in the prediction of gender equality attitude, (2) examine the effect of attitude,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 control, and moral obligation in explaining gender equality intention, and (3) propose and test the research model which integrate of social identity theory and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explaining gender equality action intention of Korean male adults. A nationwide sample of 1,016 Korean male adul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results from stepwise regression analyses indicated that the gender equality attitude was explained 13.6% by gender social identity and gender social identity was explained 15.4% by status, legitimacy, stability. Gender equality action intention was explained 44.8% by variable of planned behavior theory. The results from the LISREL supported the research model proposed in this study with reasonable goodness of fit.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s well as the future directions of this area were discussed.

Keywords: gender equality action intention; Social identity theory; Theory of planned behavior; Status of male; Legitimacy; Stability; Attitude;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 control; Moral obligation

1차원고 접수일 : 2008년 9월 11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08년 11월 25일
게재 확정일 : 2008년 11월 26일